

해외 aT센터 주재국의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조사

I. 경제동향

1. 경제지표 및 정책

(1) 필리핀의 경제 산업 구조

-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 비옥한 토지 등 천연자원과 해양자원이 풍부한 국가. 노동인구의 4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플랜테이션(Plantation) 농업이 유명. 약 188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송금, 매장량이 세계 8위에 이르는 풍부한 자연자원, 우수한 인적 자원(영어사용, 뛰어난 손기술, 카톨릭, 순종적이며 친절한 국민성 등),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자 해소 노력과 경제개발 노력을 감안하면 향후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노동력의 1/3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농업의 비중은 15%에 지나지 않음. 연 2.04%에 달하는 높은 인구증가율과 7.4%에 이르는 실업률, 나아가 정부의 부패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도 빼놓을 수 없는 경제 발전 장애요소. 일부 계층만이 부(富)를 독식하는 사회 구조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빈곤과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

(2) 필리핀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f)	2014(f)
경제성장률	%	7.6	3.9	5.5	6.1	6.5
물가상승률(연평균)	%	4.1	4.7	3.0	3.9	4.6
재정수지 / GDP	%	03.5	-2.0	-2.5	-2.1	-2.3
환율(US 1당, 평균)	PHP	45.1	43.3	42.5	42.3	42.9
대외지급 준비자산	억달러	624	753	791	859	925
수입개월수	개월	10.2	12.1	12.2	12.4	12.2
외채잔액	억달러	723	722	684	650	618
외채잔액/GDP	%	36.2	32.1	27.3	23.2	20.2
D.S.R	%	13.9	11.8	10.6	9.4	8.1
상품수출	억달러	507	472	521	555	610
상품수입	억달러	617	627	651	696	761
경상수지	억달러	89	71	89	104	116
경상수지/GDP	%	4.5	4.1	3.6	3.7	3.8
경상수지/수출액	%	10.09	8.03	9.49	10.22	10.46

[자료 : EIU Country Risk Service (Dec 2012), f는 추정치]

(3) 필리핀의 경제발전 현황

- 필리핀은 무역투자 부문 자유화 확대 조치와 정치적 안정으로 2007년에는 31년 만에 최대치인 7.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해외근로자(OFWs, Overseas Filipino Workers)들의 송금액 증가와 소비 중심적인 경제구조에 힘입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인 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은 2010년 기준으로 필리핀 GDP의 10%, 외환보유고의 38% 수준에 이른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2009년에는 1.1% 성장에 그쳤지만, 2010년에는 다시 반등을 보이며 7.3%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냄. 기후 변화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 성장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산업과 서비스 분야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농업 부문의 감소를 상쇄.
- 필리핀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 '11년 4·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8%를 기록. 이는 시장전문가 전망치 6.3%를 크게 웃돌았으며,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소비는 필리핀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012년 전체 GDP 증가율은 6.6%로 역시 6.4% 전망치를 넘었으며, 2014년에는 5.4% 성장할 전망.

[자료 : 필리핀 국립통계조정청(NSCB)]

2013년 경제성장 전망

구분	필리핀 정부	ADB	USB Securities	Moody's	OECD	WB	IMF
성장률(%)	6.0	5.0	3.5	5-6	5.1	4.2	4.9

[자료 : KOTRA 마닐라무역관(각 기관 발표자료 종합)]

- 물가 : 필리핀 국가통계국(NSO)에 의하면, 2012년 필리핀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의 4.3%보다 높은 4.5%로 상승. 필리핀 중앙은행은 2013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3.2%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 2013~2014년 물가 상승률 목표를 3.0%~5.0%로 유지.

[자료 : 필리핀 국가통계국(NSO)]

2. 환율 및 금융 동향

(1) 환율

- 현재(2013년) 필리핀 페소는 26.16원에서 거래를 진행 중. 눈에 띄는 사항으로는 가격의 26원 돌파를 확인할 수 있으나 페소는 아직까지 하락채널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돌파하기위해 이동 평균선을 돌파시도를 마친 상태.

환율 동향

	20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페소/달러	42.86	42.87	43.00	42.44	43.49	42.28	42.09	42.32	41.88	41.26	40.88	41.19
원/달러	1,126.80	1,116.80	1,132.00	1,129.50	1,176.00	1,146.00	1,139.00	1,133.90	1,111.50	1,090.70	1,084.70	1,067.00
페소/원	26.15	26.15	26.36	26.50	27.05	27.11	27.14	26.85	26.62	26.45	26.54	25.97

[자료 : 외환은행, MetroBank 매매기준]

- ☐ 필리핀 중앙은행에 따르면, 향후 필리핀 페소화의 달러화 대비 환율은 42~45 수준이 유지되면서, 페소화의 절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인사이트(GI)에 따르면, 필리핀 환율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13년에는 달러화 대비 환율이 44.37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BSP) 및 외환은행]

(2) 금융

- ☐ OECD 국별 등급 : 4/7 등급

- ☐ 기타기관의 평가 및 순위(금융시장에서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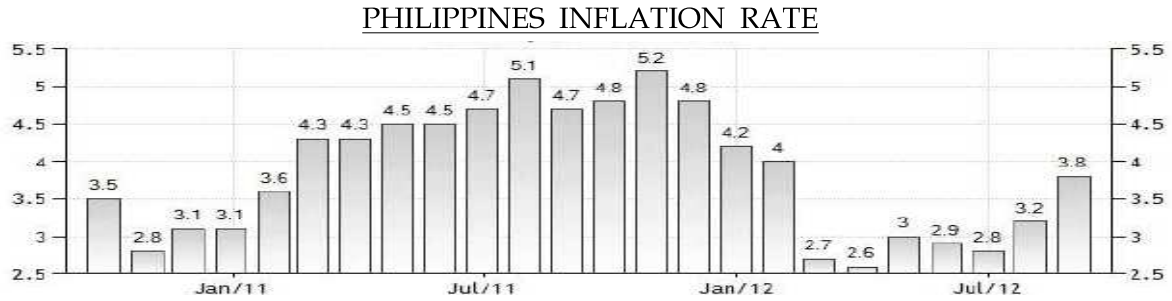
평가기관	국 별 순위(등급)	순위(등급)인접국
S&P	BB+ /Stable('12.12.20)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Moody's	Ba2/Positive('12.10.29)	터키, 모로코
Fitch	BB+/Stable('11.06.23)	우루과이, 튀니지
I. I.	59/178('12.09)	카자흐스탄, 아일랜드
ICRG	49/178('12.12)	페루, 러시아

- ☐ 필리핀 중앙은행은 역RP금리와 RP 금리를 각각 4.5%와 6.5%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율이 예상치를 넘어서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지수와 기타 지표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 그밖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은행 지급준비율의 인상(21%로 조정)으로 700억 페소의 예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료 : 필리핀 중앙은행(BSP)]

(3) 성장 변수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 ☐ 국제고유가에 따른 국내오일가격 인상, 지프니 등 대중교통 요금 상승, 전력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2012년 인플레이션률은 3.8%를 기록.



[자료 :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 페소화의 평가절상과 세계경제, 특히 미국 및 유럽 등의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물가인하 요인으로 작용하여 물가 상승 요인의 일부에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 필리핀 중앙은행(BSP), 국가경제개발청(NEDA)는 3%~5%, Barclays Capital는 3.5%의 완만한 물가 상승을 예상
- 필리핀 중앙은행은 세계경제의 후퇴에 따른 국내경기 진작을 위해 2012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3.75%로 인하.



[자료 : 필리핀 중앙은행(BSP)]

3. 무역현황 및 정책

(1) 필리핀의 무역 대한관계

- 필리핀은 한국 단독수교국. 1949년 3월 국교관계가 수립된 이래, 한국전 참전 등 전통적인 우방 국가로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 간 교류가 확대 발전되고 있으며 1954년 1월에는 양국의 상주 공관이 설치되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 한-필리핀 주요 협력관계

- 한국 수출대상국 중 62위, 수입대상국 중 37위의 적자교역대상국('09년)
- '10년 수출 9.4억불(47.2% 증가), 수입 10.4억불(13% 증가)로 교역량 증가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중점협력대상국으로 봉사단 파견 1순위(90명)

- 한국 입장에서 필리핀은 제 18위 교역대상국(수출대상국 14위, 수입대상국 24위)이고, 필리핀 입장에서 한국은 제 9위 교역대상국(수출대상국 9위, 수입대상국 7위).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반도체 부품, 휴대전화, 전기 및 전자제품 등이고, 수입 품목은 반도체 부품, 전기 및 전자제품 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양국 간 교역현황(한국-필리핀)

필리핀과의 교역 규모는 1990년 7.7억 달러에서 2011년 13배가 증가한 108억 달러를 기록

· 교역변화 : ('90)7.7억 달러→ ('00)51.7억→ ('08)81.2억→ ('09)72.2억→ ('11)108억

한-필리핀 수출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0		2011		201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9.326	29.2	10.810	16.0	7.716	7.4
수출	5.838	27.8	7.339	25.7	5.483	15.2
수입	3.488	31.5	3.571	2.5	2.233	-11.8
수지	2.350	22.7	3.767	61	3.250	33.9

- 2011년 투자건수 면에서는 세계 7위의 투자대상국(동남아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 금액 면에서는 20위권 투자대상국.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필리핀의 수출과 수입 동향

필리핀 수출입 통계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9,326	29.2	10,810	16.0	5,893	13.0
수출	5,838	27.8	7,339	25.7	4,149	12.4
수입	3,488	31.5	3,571	2.5	1,744	-6.6
수지	2,350	22.7	3,767	61	2,405	58.0

[자료 : KOTIS]

(2-1) 필리핀의 수출 시장

- 필리핀의 높은 경제성장에 따라 필리핀 수출액은 지속 증가중임.

- 2010년 27.8% 증가, 2011년 25.7%, 2012년(1~11월) 12.4% 증가를 기록. 그러나 필리핀은

제조업이 취약·편중돼 있어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이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골고루 돌아가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산업 구조상 당분간 지속될 것.

- ☐ 필리핀의 주요 대기업은 제조업보다는 유통, 부동산 개발, 서비스업 등에 치중하고 중소기업 또한 제조보다는 수입 유통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대됨.
- ☐ 사실상 필리핀의 제조업은 전기전자(반도체)와 식품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외국 투자기업이 주류인 전기전자(반도체) 분야가 수출액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특정산업에 편중돼 있음.

필리핀 수출 통계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339	25.7	4,149	22.4
1	석유제품 (경유, 휘발유, 제트류)	1,204	124.5	1,000	90.1
2	반도체	1,663	-10.2	856	20.1
3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402	410.3	201	20.7
4	자동차	346	4.6	192	14.2
5	철강판	361	46	119	-21.5
6	동제품(구리선)	251	4.5	113	-9.8
7	정밀화학원료	345	40.4	106	-36.1
8	수동부품(축전기)	222	-2.1	76	-34.4
9	합성수지	145	4.4	70	-12.9
10	편직물(메리야스편물)	120	26.9	64	-3.4
11	기구구품	101	76.7	61	57

[자료 : KOTIS]

(2-2) 필리핀의 수입 시장

- ☐ 상반기 대필리핀 수입액 전년대비 6.6% 감소.
 - 2012년 상반기 대필리핀 수입은 반도체가, 원유, 곡실류, 동제품 등 1차 제품과 수동부품,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등 현지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는 IT 제품이 주를 이룸.
- ☐ 전체적으로 6.6% 감소했으며 수입비중이 높은 반도체, 원유 수입이 감소한 반면, 곡실류, 기호식품, 수동부품 등의 수입 증가.
- ☐ 필리핀의 산업구조는 자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 중심의 전자 및 반도체 품목 부문이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듯이 수입품 부문에서도 전자와 반도체 등 중간재의 비중이 높음.

필리핀 수입 통계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571	2.4	1,744	-6.6
1	반도체	1,105	-12	441	-23.8
2	원유	629	35.4	323	-4.4
3	곡실류	298	15.8	182	18.3
4	동제품	220	-33.5	115	-12.1
5	수동부품	147	14.5	87	29.2
6	기호식품	116	29.5	65	44.8
7	동광	201	142.9	62	-47.1
8	컴퓨터	70	-49.2	42	-4.7
9	기구부품	61	16.4	32	5.5
1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2	-9.7	27	8.9

[자료 : KOTIS]

II. 농업동향

1. 필리핀 농업 동향

(1) 내외부 환경변화

- ☐ 필리핀 노이노이 아퀴노 정부는 'Philippines Development Plan 2016'을 통해 2016년까지 필리핀의 경제성장과 특히 인프라 확충과 빈곤 감소에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현 필리핀 노이노이 아퀴노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을 지나는 2013년에 추진 속도를 높일 전망.
- ☐ PPP 센터를 통해 NAIA 고속도로 2단계 사업, Daang Hari-South Luzon도로 사업, 10여개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그 동안 필리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미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음

(2) 주요 농업지표

- ☐ 농업 부문 경제 기여도

부문 \ 기여율	2010년	2011년	2012년
농업	13.9%	12.8%	12.3%
산업	31.3%	31.5%	33.3%
서비스	54.8%	55.7%	54.4%

[자료: CIA World Factbook]

- ☐ 필리핀 GDP에서 농업의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 2010년에 비해 2012년은 1.6% 감소.

□ 필리핀의 농업은 곡물의 작황에 따라서 변동을 보이는데 2012년의 수산업의 생산량의 감소 하였으나 곡물과 가금, 축산업 등 나머지 부분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GDP에 대한 비중이 점점 빠르게 줄어듦.

□ 생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은 필리핀 경제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농경지 현황

	2004	2009
총 국토 면적	298,200km ²	298,200km ²
농경지	5000,000	5400.000
영구작물	4850,000	5050,000
forest land	7336,000.20	7610,000.20

[자료: World Bank indicator]

○ 필리핀의 농경지는 540만 헥타르로 전체 국토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수원등 영구 작물을 생산하는 면적은 505만 헥타르로 전체에 대한 비중은 16.9%로 나타났음

□ 농업 노동 비율

총 고용인구	37.19 백만명
1차 산업 고용인구	12.27 백만명 (총 고용인구의 33%)

[자료: 필리핀 통계청 Philippine Agriculture in Figures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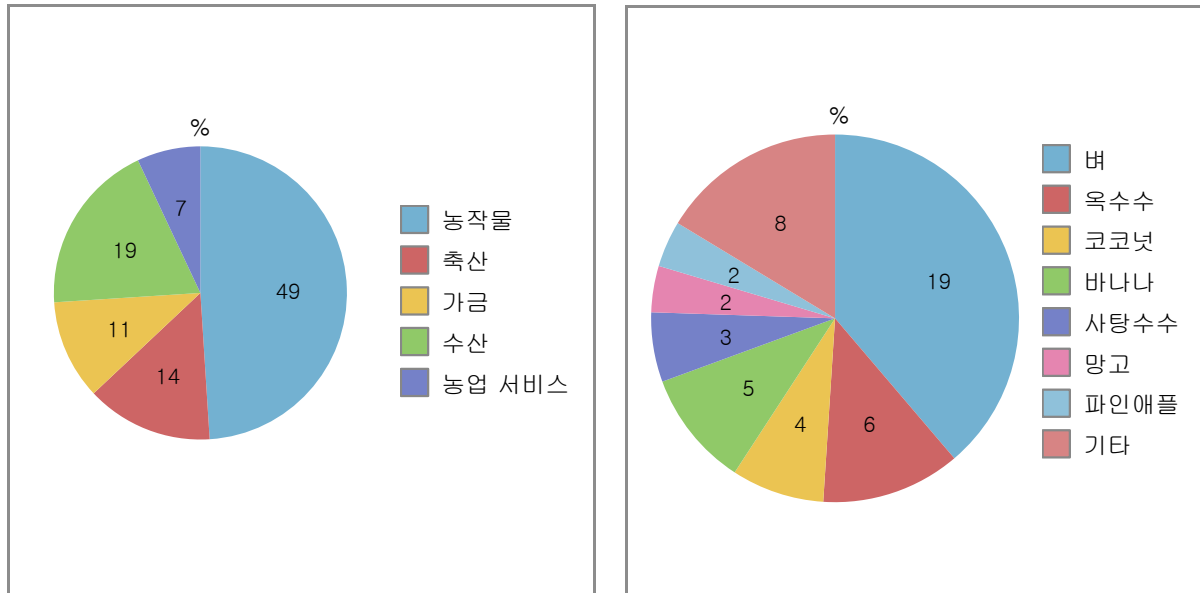
<필리핀 1차산업 고용인구 변화추이>

2009	2010	2011
34.35%	33.18%	33%

[자료: 필리핀 통계청 Philippine Agriculture in Figures 2011]

- 2012년, 3719만명의 총 고용인구 중에 1227만명이 농업에 고용됨. 이는 필리핀 총 고용노동 인구의 3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2009년의 농업 종사하는 비중이 34.35%에서 2012년 33%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지만 농업이 필리핀 노동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줌.

2. 농업생산 현황



- 농업은 2012년 2.92% 성장하였으며 농작물, 축산, 가금류는 3.60% 증가 하였다. 어업은 2011년 보다 다소 하락하였다. 종합적으로 농업의 생산량은 2.92%이며 1.3조의 생산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2011보다 1.17% 높은 수치
- 필리핀의 주요 농업 생산물은 농작물이다. 필리핀 총 농업생산량의 49%를 차지하며 이 중 쌀이 19%로 최대 생산물. 쌀과 옥수수는 식량으로 국내에서 소비. 2011년에 비해 쌀 생산량이 5.78%, 옥수수는 9.32% 증가.
- 코코넛과 사탕수수, 바나나, 망고 등은 주로 수출. 코코넛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생산국. 바나나는 인도와 중국에 이어 3위, 사탕수수는 7위. 사탕수수는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작물이나 그 가치가 낮음.
- 2011년에 비해 생산량은 소가 1.79%, 돼지가 2.22%, 유제품은 3.72%증가
- 닭고기와 계란은 각각 4%의 생산량 증가하여 축산물과 가금류 생산이 모두 증가
- 이와 반대로 어업은 생산량이 감소하여 필리핀 총 농수산업 생산량 증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상업용 및 지방자치 어업은 16.85%, 2.83%의 생산량이 감소. 이는 지난 세기동안 어류의 과다 포획으로 인한 종과 개체의 감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 국제적 해양 환경과 생물 보호에 대한 규제와 협약 등에서 기인.

<필리핀 농업생산 지수>

총농업생산지수 (2004-2006 = 100)

	2004	2009	2011
총농업생산지수	102.43	111.85	114.70
식량	102.45	112.10	114.90
곡물	101.60	112.03	114.01
비식량	99.54	99.27	104.25
축산물	105.04	111.26	116.85

- ☐ 필리핀의 농업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ASEAN 국가들에 비해 느리고 변칙적이다. 농작물과 축산물 생산이 필리핀 농업생산 증가를 이끌고 있음.
- ☐ 천연자원과 해양자원이 풍부한 필리핀은 플랜테이션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은 지주와 소작인의 착취관계로 인해 생산성이 낮음.

3. 농산물 가격

- ☐ 생산자 가격은 2011년에 비해서 7.53% 증가 곡물가격은 평균 4.73% 증가 쌀가격은 2.11% 증가. 황옥(노란옥수수)은 4.55% 가격 증가 백옥(흰옥수수)은 34.51% 증가. 야채, 콩류가 33.60%로 가장 큰 가격증가를 보임. 한편으로 축산업의 경우는 1.23%의 가격 하락, 가금류의 경우에는 3.29% 가격증가로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가금류는 전반적으로 가격 증가 추세임
- ☐ 식품 및 비알콜 음료의 경우 2011년보다 5.48% 가격 상승

4. 농업 정책 기본 방향

(1) 필리핀 개발 정책 2011-2016

- ☐ 필리핀은 현재 아퀴노정권의 주도하에 필리핀개발정책 2011-2016(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1-2016)을 실행하고 있다. 크게 10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농업부문은 Chapter 4.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수산업'(Competitive & Sustainable Agriculture & Fisheries Sector)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골자로 4개의 비전, 3개의 목표와 각각의 목표를 위한 전략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가지 비전은 다음과 같다.
 -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기술 중심의 농/수산업
 - 국내외시장에서 통합되고 효율적인 가치사슬의 지원을 받는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농/수산업 종사자에 의한 추진
 - 포괄적인 성장과 빈곤 감소에 기여
- ☐ 필리핀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일년 삼모작으로 깃던 아시아 최대의 농업국이었으나 현재 국내 소비량에 못 미치는 식량 작물의 생산과 기후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퀴노 정부는 국내 소비량을 충족하는 쌀 공급과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과 농업 인프라 개선을 중

점으로 하고 있음

5. 주요 농업정책

□ 주요 농업 정책 목표

- 식품 안전과 도서지역 소득의 증가
-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증진
- 정책 환경과 공공경영의 강화

(1) 주요 농업 정책 전략

□ 식품 안전과 도서지역의 소득 증진을 위한 전략

- 생산성과 농/수산업을 기본으로 한 가계과 기업들의 소득 상승
-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영양 많은 음식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쉽게 접근 가능 하도록” (FAO, 2002)하는 것이 목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접근이 도서지역의 빈곤을 감소시키며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소득을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 생산 품목의 다양화
 - 더 나은 어업 자원 관리를 위한 시의 수도 설계 완료
 - 도서지역의 인프라와 시설을 확립
 - 시장 개발과 규제의 명확함
 -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확장
 - 각 부문의 신용에 대한 접근 증진
 - 음식의 효용과 적정 가격의 안정
- 효율적인 가치사슬을 걸친 투자와 고용의 증가
 - 현재 필리핀의 농업이 점점 기계화됨으로써 정리해고가 예상됨. 이를 위해 필리핀 정부는 농업과 관련된 산업 서비스, 부가가치가 높은 농/수산업의 확장을 통해서 해고된 노동자를 흡수하려 계획. 무료 교육과 훈련이 해고된 노동자에게 제공될 것임.
 - 현재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시장의 탐색 그리고 농/수산업과 관련된 산업의 개인 투자를 증진하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
 - 농업 홍보과 개발을 지역화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조정. 이러한 지역 전략은 지역 상품의 옹호 및 경쟁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적용
 - 더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을 홍보하고 이해관계자의 가치 사슬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발
 - 농/수산업에 대한 투입자본과 생산, 마케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 촉진
 -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집중을 통한 국가의 농수산물 수출 강화
 - 농/수산업의 투자 증진
- 농지개혁의 수혜자를 성공한 기업가로의 변화
 - 전략 1.3은 1988년부터 시행된 ‘포괄적 농지개혁계획(Comprehensive Agrarian Reform Program: CARP)’의 수혜자들의 능력 강화, 고부가가치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력증진, 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 수혜받은 토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요함.
 - 토지 소유에 대한 개인 인증서를 통해 포괄적 농지개혁계획의 수혜자들의 토지 보유의 안

정성을 달성

- 포괄적 농기개혁 수혜자들과 그 조직들을 개발, 관리하는 조직의 역량 강화
- 동네 상점 수준의 기업들을 공식적이고 성공적인 중소기업으로의 성장과 수혜자들의 군집화, 네트워크 확립
- 수혜자들의 신용 접근의 자유화
- 수혜자들과 관련 조직들에게 기업 기반의 법률적 자문 제공
- 관개수로와 같은 인프라 확보

(2)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증진

- 현재 필리핀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농/수산업이 위협받고 있음. 이는 작황 재배의 악화와 도서지역의 인프라 파괴, 수질 오염, 어획량의 감소, 수도 공급을 불리움.
- 기후변화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생태계 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물다양성과 취약성 보호, 지속가능한 환경과 자원을 기반으로 한 농업/에코 투어 진흥
 - 통합된 수자원 관리와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기술을 물, 토지 그리고 관련된 자원에 적용
 -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의 촉진
 - 어장과 먹이사슬, 서식지 보호와 복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조업기술과 생산물을 통한 기후 변화 리스크 대응
 - 지속가능성, 다구간적이고 공동체 중심의 자원관리 매커니즘 증진
-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의 개발과 농업 인프라, 기후 대응 식량 시스템, 취약한 지역에 지원을 통한 기후 변화 리스크 대처
 -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증진
 - 성공적이고 경쟁력있는 작물, 가축, 어류 다양성 촉진
 -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인프라-특히 관개수로의 강화, 확보
 - 기후 변화에 대한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지식과 역량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제공, 강화
- 농/수산업의 보험 시스템을 통한 리스크 공유 매커니즘의 증진
 - 위험 감소 매커니즘의 증진 (보증, 보험)
 - 날씨 지수에 따른 보험 시스템과 같은 혁신적인 위험전가 매커니즘 소개
- 농업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종합 토지 이용 계획 (CLUP)에서 자연 재해와 기후 위험을 통합
 - 필리핀 전역의 효과적인 토지 사용을 위한 정책과 계획의 법률제정
 -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을 활용하여 위험 지역을 식별하고
- 기후 변화 리스크와 자연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능력 강화
 - IEC 캠페인 및 지역 수준의 역량 강화 활동 실행
 - 지역 사회 기반의 조기 경보 시스템과 농업 기상학과 교육시스템 수립
- 식량 생산 영역의 취약성과 적응 평가 지속
 - 불규칙한 건/우기를 알리기 위한 날씨 기반의 식부 달력 제작과 중간 범위 일기 예보에 따라 최적의 파종법을 개발
 - 가뭄동안 식품 안전 보장을 위한 지하수 자원 가용성 및 취약점 평가, 연구

(3) 정책환경과 공공경영의 강화

- 관련 부서의 공동의 목표 의식 설정과 관리 전략을 통해 일관된 정책 추진하도록 하며 예산의 개혁, 법률과 정책의 제고를 통한 정책 환경과 공공경영의 보완과 향상 추구
 - 국가 컨버전스 전략(National Convergence Initiative :NCI)의 매커니즘과 목표를 재확인하여 관련 부처에 의한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다구간 통합 계획 방식. NCI를 통한 농촌 개발 기관 공동 기획, 프로그래밍 및 예산, 구간별 국가별 목표 달성에 모니터링 및 평가
 - 2014년까지 포괄적 농지 개혁의 완성을 가속화
 - 합리적 토지 이용 정책과 토지 재산권 시스템 강화
 -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하여 토지 자원 기반을 유지
 - 농업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 지속 가능한 고지대 개발 및 산림 경영 추진
 - Initiating CCA and mitigation measures
 - 도서지역 개발 단체들 사이의 공동된 개발 성과 관리 도입을 통해서 성과, 진행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실행틀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향상에 초점
 - 예상 개혁의 실행. 현재의 예산 시스템은 생산물 위주로 경쟁력을 촉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시장/정소 서비스, 규제와 연구에도 초점을 맞추어야함
 - 인프라와 가치 사슬 개발에 공공-민간 협력 시스템 추구
 - 중요한 법률 및 정책 발효를 검토. 법률과 정책의 검토는 현재 개발의 확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

(4)2013년 농업 예산안

- 2013년 필리핀 농림부에 할당된 예산은 73.6억 페소이며 이는 2011년의 61.4억 페소에 비해 19.9% 증가된 금액임.
- 농산물 생산 관련 프로그램
 - 15.3억 페소는 농업프로그램에 지출될 예정이며 쌀 생산량은 2천만 미터톤, 옥수수는 8.4백만 미터톤, 수산물 5.4백만 미터톤, 코코넛 관련 제품은 3.23백만 톤의 증가의 추가생산을 통해 필리핀 국내 식량공급의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임.
 - 정부는 7.4억 페소를 쌀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이며 1.5억 페소는 옥수수, 1.75억 페소는 코코넛 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임. 수산물에는 4.6억 페소로 2012년의 3억 페소보다 1.6억페소 증가함.
-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
 - 관개수로 개발에는 27.3억 페소로 61,215헥타르의 농지에 관개수로를 새로이 설치하고 42,219헥타르의 관개수로 복구와 112,699 헥타르에 관개수로 재건에 사용될 예정.
 - 농장과 농장을 잇는 도로에는 7억 페소의 예산이 할당되어 750킬로미터의 도로 설치가 예상됨

(5)포괄적인 농지 개혁 프로그램

- 포괄적인 농지 개혁 프로그램의 완료를 위해 6.1억 페소가 할당되어 360,000헥타르의 농지 분배에 사용될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각각 정부 부처에 지원금으로 각 부처의 목표를 성취

하도록 할 것.

6. 농식품 무역동향

(1) 농식품 수출입동향

- 필리핀의 2012년의 수출액은 40,066백만 달러(USD)이며 이것은 2011년에 비해 7.20%증가한 수치임. 농산물 수출액은 3,662.11백만 달러이며 이는 필리핀 총 국가 수출액에 9.14%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는 작년 수준에 비해 9.98% 감소하였음
- 필리핀의 2012년 농산물 수입액은 6,075.92백만 달러이며 이는 국가 총 수입액의 48,828.35달러에서 12.44%에 해당함. 수입액은 2011년에 비해 3.55% 증가하였음
- 농업 무역 적자는 2011년 1,799.66백만 달러에서 2,413.81백만 달러로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34.13%증가하였음.
- 일본과 유럽연합에서의 무역수지는 각각 434.67백만달러, 229.32백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나머지 국가에서는 모두 적자를 기록함. 아세안 국가들과는 1140.21백만달러, 호주와는 519.01백만달러, 미국과는 386.25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Table 3. 필리핀의 수출 상위 10개 품목>

Quantity in '000 M.T., FOB Value in M US\$

품목	2012			2011			2010			FOB 가치 증감율	
	수량	FOB가치	비율	수량	FOB가치	비율	수량	FOB가치	비율	12/11	11/10
천연코코넛 오일	611.86	777.97	21.24	638.71	1170.86	28.78	1094.10	940.51	31.75	-33.56	24.49
바나나	1760.34	453.26	12.38	1538.70	352.74	8.67	1150.55	229.29	7.74	28.50	53.84
참치	53.98	323.86	8.84	59.38	230.02	5.65	83.99	271.90	9.18	40.80	-15.40
파인애플	554.09	308.19	8.42	423.56	244.88	6.02	295.69	169.86	5.73	25.85	44.17
말린 코코넛	62.52	157.51	4.30	81.60	216.96	5.33	82.63	106.16	3.58	-27.40	104.37
담배	15.44	111.09	3.03	19.87	142.66	3.51	17.33	120.42	4.06	-22.13	18.47
해초류와 카라기난	25.32	135.85	3.71	33.04	158.56	3.90	14.64	94.31	3.18	-14.32	68.13
분밀당	201.87	108.74	2.97	317.98	201.04	4.94	72.44	36.79	1.24	-45.91	446.45
우유 및 유제품	17.02	77.36	2.11	28.37	125.33	3.08	24.35	99.40	3.36	-38.27	26.09
비료제조품	203.15	95.14	2.60	350.88	165.37	4.07	323.28	153.03	5.17	-42.47	8.06

[출처 : philippines statistics office]

- 1위 수출 품목은 코코넛 오일(전체 수출 농산물수입의 21.24%)이며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와 미국임

<Table 5. 필리핀의 상위 10개 수입 품목>

Quantity in '000 M.T., CIF Value in M US\$

품목	2012			2011			2010			FOB 가치 증감율	
	수량	CIF가 치	비율	수량	CIF가 치	비율	수량	CIF가 치	비율	12/11	11/10
호밀&마스 린	2,330. 53	703.68	12.03	1,793. 88	649.70	11.07	1,479. 07	398.04	6.92	12.46	63.22
우유 및 유제품	211.23	501.90	8.26	207.18	527.79	8.99	210.37	437.30	7.60	(4.91)	20.69
식용유	1,047. 56	459.10	7.56	1,661. 75	429.52	7.32	737.68	282.28	4.91	6.89	52.16
비료제품	737.80	287.02	4.72	649.91	235.75	4.02	618.95	197.50	3.43	21.75	19.37
커피	73.70	192.73	3.17	36.66	92.32	1.57	52.17	85.65	1.49	108.76	7.79
소고기	59.21	172.06	2.83	67.39	192.17	3.28	72.11	139.08	2.42	(10.46)	38.17
요소	398.64	168.46	2.77	395.25	154.74	2.64	383.52	120.62	2.10	8.87	28.29
비가공 담배	42.85	125.42	2.06	42.32	116.47	1.98	28.29	90.50	1.57	7.68	28.70
옥수수	117.32	69.81	1.15	37.23	33.11	0.56	82.84	64.21	1.12	110.84	(48.43)
쌀	835.30	363.05	5.98	698.08	373.79	6.37	2,356. 97	1,637. 64	28.47	(2.87)	(77.18)

[출처 : philippines statistics office]

- ☐ 호밀과 마스린, 우유 및 유제품은 수입품의 20.56%를 차지. 호밀과 마스린의 주수입국은 미국이며 우유와 크림제품의 주수입국은 뉴질랜드임
- ☐ 필리핀의 상위 10개 제품의 농산물 수입은 3,070.23백만달러이며 이것은 작년의 2,805.35백만보다 9.44%높은 수치이다. 옥수수가 110.84%, 커피가 108.76%로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임
- ☐ 필리핀 정부가 쌀의 생산량을 증가하려 한 노력 덕에 쌀 수입량은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2)한국과의 농식품 교역 동향

- ☐ 한국은 필리핀의 8위 수출대상국이자 6위 수입대상국이며 5위 교역대상국임
- ☐ 필리핀은 한국의 17위 수출대상국이자 27위 수입대상국임.
- ☐ 2010년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은 58억 4000만 달러, 수입은 34억 9000만 달러로, 2009년 대비 수출과 수입이 각각 27.8%와 31.5% 증가.
- ☐ 무역수지 흑자도 2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교역 사상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함
- ☐ 한국은 필리핀에 반도체, 석유 제품과 같은 2차 산업 생산물을 주로 수출하며 수입품은 원유등의 산업의 원재료가 주임. 그러나 곡물은 257백만 달러에 이르고 농산물 수입은 매해 증가하고 있음
- ☐ 필리핀은 한국의 버섯, 감귤, 양파에 대한 수출협상이 타개되고 한국 역시 필리핀 망고와 파파야에 대한 수입이 허용되어 한국-필리핀 양국간의 농산물 수출입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음

7. 관세 현황

- ☐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AKFTA)의 기본협정이 2010년에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필리핀의 관세 장벽도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임.
- ☐ 필리핀 정부는 일반 민감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 이내, 초민감품목은 2016년도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AKFTA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을 2012년 4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일반 민감품목의 관세율이 2012년부터 20% 이내로 인하돼 시행
- ☐ 오리, 고등어, 소시지품목이 2011년도까지 최혜국관세율(MFN)을 적용했으나 2012년도부터 조정 AKFTA 세율 적용
- ☐ 민감품목 그룹 B품목인 돼지, 닭, 돼지고기, 양배추, 마늘, 고구마는 20% 이내로 조정
- ☐ 당초 민감품목으로 분류됐던 파종용 벼, 야자유는 일반품목으로 조정돼 2012년 1월부터 관세율 0% 적용
- ☐ 필리핀은 담배 관세율 5%, 사과와 배는 3%로 관세를 인하
- ☐ 관세할당제에 해당하는 농산물은 가량의 높은 30~65%관세가 적용됨 (in-quota Tariffs)
- ☐ 설탕 관세는 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쌀이 의 고관세율을 적용받음 65% , 50%
- ☐ 설탕 야자나무 등 필리핀 내 생산 원료로 주조된 증류주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
- ☐ 필리핀은 옥수수 돼지고기 가금류 등 개 농축산물에 대해 자율관세할당 제도를 실시함 (Tariff Rate Quota, TRQ)

8. 동식물 검역제도

- ☐ 법령체계
 -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령은 식물검역령(대통령령)임
 - 세부사항은 식물산업국 검역행정령으로 규정
- ☐ 용어의 정리
 - 식물(plant) : 살아있는 식물 및 그 일부분
 - 식물성 산물(plant production) : 식물에서 분리된 산물로서 식물의 자연적인 상태 또는 식물병해충을 은신시킬 수 있도록 가공 또는 제조한 상태
 - 잠재적인 동물병해충(potential animal pest) : 농작물병해충이 될 수 있는 동물
 - 식물병해충(plant pest) :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에 해를 끼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의 형태 또는 병원체
- ☐ 사전 수입 허가가 요구되는 물품
 - 살아있는 식물
 - 묘목(번식물질로 사용되는 생명력이 있는 그들의 일부분도 포함)
 - 특별검역령하에서 수입금지 또는 제한품으로 공포된 신선 과일, 채소 및 기타○물품, 유해한 과일과리류가 분포하는 국가산 연하고 육질이 많은 과일
 -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선충 및 기타 식물병원균의 순수한 배양체
 - 균사를 포함한 버섯 배양체

- 조류의 배양체, 근류균
- 흙과 생명체 격리용 식물성 물질
- 다른 식물배양체

☐ 사전 수입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 물품

- 식용, 사료용, 제조용 또는 가공용의 과실, 채소 및 저장산물과 같은 식물성 산물로서 식물검역 제한이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 흙, 모래 또는 토양이 없고, 완전히 건조, 살균 또는 독살된 식물 표본
- 검역제한이나 금지품이 아니고, 10점이하로서 승무원이나 승객의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들어오는 식물
- 흙, 모래 또는 토양이 없는 신선 화훼, 꽃바구니 등

☐ 식물 검역증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식물병해충을 은신시킬 수 있는 다른물품은 수출국의 식물 검역증을 첨부하여야 함

☐ 검사량

수입식물은 10~15%를 수출하여 검사함(단, 식물검역증이 없는 물품은 100% 검사)

☐ 흙, 모래 또는 토양제거

수입식물, 식물성 산물 및 다른물품(컨테이너, 자동차 등)은 흙, 모래 또는 토양이 없어야 함

☐ 포장 물질의 승인

벼짚, 왕겨, 코코넛잎, 사탕수수잎, 대나무잎, 밀짚, 풀, 잡초 또는 특별검역령하에서 금지품으로 고시한 물품은 수입식물의 포장물질로 사용할 수 없음

☐ 잠재적인 동물 병해충의 수입

농작물병해충이 될 수 있는 특정동물은 수입이 금지됨

☐ 수송 매체의 출입 및 수속

- 선박 및 비행기 도착통보서 제출, 식물검역관의 검사, 검역조치, 검역감독 및 통제실시 등

☐ 식물검역시행 수수료 및 비용

수입허가증 발행수수료, 검사 및 증명수수료, 격리검역비용, 금지된 물품의 폐기수수료

☐ 시간외 근무 수수료

초과근무수수료, 식사제공 : 식사시간대에 초과근무를 할 때, 운송비, 숙박비

☐ 책임면제 조항

- 식물검역과 관련된 보관, 채선, 우마차, 노동제공, 지연, 상품소독처리 및 격리검역 등에 대한 책임은 화주가 진다.
- 식물산업국과 식물산업국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은 식물검역을 하는 동안 발생된 상품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지중해과실파리, 멕시코과실파리, 퀴즐랜드과실파리 및 다른과실파리가 분포하는 국가산 신선과실 및 열매, 채소의 수입

1. 지중해과실파리, 멕시코과실파리 및 퀴즐랜드과실파리가 분포하는 국가산

- 사전 수입허가를 받고, 필리핀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수출국에서 또는 수송중 저온처리(0℃에서 14일이상)를 한후에 수입해야함

2. 상기와실파리외 다른 과실파리가 분포하는 국가산

① 과실파리가 분포하는지에 대한 확인 실시

② 식물산업국장의 사전 수입허가 필요 등

□ 수입 금지 및 제한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

① 식물 및 식물의 부분 : 국가별로 지정

- 대나무속, 카카오, 감귤속, 코코넛, Kenaf, 망고, 파초아과, 용설란, 벼, 고무, 사이설, 사탕수수, 담배, 채소 및 다른 과실

② 식물성 산물(국가별로 지정)

- 신선과실 및 채소, 건조 또는 미가공 대나무, 벼짚, 왕겨, 코코넛잎, 사탕수수, 밀짚, 풀 및 잡초

[자료: 농림수산검역본부]